

하나님의 세가지 수확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13:24-30] 24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26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2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29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 36-43] 36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아들]이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사람의[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 하나님의 수확과 종말의 때

우리는 지난 몇 차례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종말 때의 휴거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두번째 수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에 있을 수확에 관하여 몇번에 걸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위에 소개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수확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적 고찰을 통하여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가 오는 종말의 때, 즉 하나님의 수확의 때에 잘 준비된 알곡, 즉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 주님이 종말에 계획하시는 수확 계획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에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감지하고, 그들이 한적한 곳에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고, 제자들이 이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확물을 거두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의 수확을 휴거와 연관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 수확이 휴거와는 별도로 계획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와 다른 비유들, 휴거에

관한 사도 바울의 예언들, 그리고 계시록 14 장 등을 연관하여 묵상한 결과 나는 이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세가지 수확 중 두가지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거나 과실 나무에서 과일들을 거두는 농업적 수확 활동을 합니다. 참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여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조건들을 만드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을 얻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종들을 불러서 “흰 들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할 일군이 부족하다 [누가 10:2]”고 하시며, 그들을 보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때에 거두실 알곡이 풍성하게 많도록 이 세상의 방방곡곡마다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 말씀을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의로운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기르심으로 알곡이 풍성히 열리도록 하시며,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기쁜 수확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사용하신 여러 용어에 관한 주님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주님
- 2) 밭: 세상
- 3) 좋은 씨, 즉 농부가 바라는 곡식: 하나님 왕국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크리스찬들
- 4) 가라지: 사악한 자의 자손들, 즉 사탄의 제자들
- 5) 가라지를 뿌린 자: 마귀, 즉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 6) 수확하는 때: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
- 7) 수확하는 자들: 천사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다음 두가지 계획된 수확 활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수확 활동은 가라지, 즉 사탄의 제자들의 수확인데 수확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어라*[30 절]”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에 관해 설명하시기를, “*그들이[즉, 천사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41, 42 절].” 사실 가라지 수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확이 되지 못합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은 일종의 청소라고 보겠습니다.

둘째 수확은 알곡,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늘의 왕국에 있는 곳간으로 들이는 수확인데, 이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43 절]”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수확으로서 이는 휴거의 기적을 통하여 수행하실 것입니다.

나. 종말에 주님께서 수행하실 교회의 대청소

나는 이 주님의 첫번째 수확 활동을 종말에 있을 ‘교회의 대 청소 [Great Final Purification of the Church]’라고 부르려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도 종말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이

위대한 대 청소 작업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종말에 있을 교회의 대 순화작업, 대 청소 작업에 관하여 주목하고 그에 관해 설교하기를 권합니다. 이 주님의 대청소는 교회에 맡기는 과업이 아니며, 주님 스스로 천사들을 보내어 수행하실 대규모 청소 작업입니다.

이 대청소 작업은 이 세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님 자신의 교회가 그 대상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왕국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도 존재하는데, 이 왕국들은 대부분 나라에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독교계 [Christendom]’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파들을 종합하여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공존하며, 현세에서 우리는 그 두가지 왕국이 심하게 충돌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제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지금처럼 뚜렷하게 공공연히 국가 사회, 지역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예술, 상업, 과학기술,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활약하는 시대는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권 내에 가라지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서 성장하여 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권에서 인정 받는 교파들로서, 인정 받는 대형 교회들로서, 인정 받는 신학자들로서, 책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의 리더들로서 사실은 사탄을 추종하고 그로부터 재정적, 영적, 정신적 지원을 받아 날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인 것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세력이 교회 안에서 커 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처내지 말고 수확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들을 척결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곡식들, 즉 선한 성도들이 많이 다치고 손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대청소는 주님의 몫으로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첫번째 수확 활동인 교회의 대청소 과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가라지의 대청소 작업이 이 땅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가 하늘 왕국에 옮겨 간 후에 일어나는 일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종말에 가라지들을 모두 모아 멸망시킬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이 일이 ‘그의 왕국’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권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누구들인지 나는 지목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요 저주받아 마땅할 원수의 무리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들이 교리가 약간씩 다르다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성경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도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 축적이 목적인 목회자는 원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멀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세상적으로 되어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조직들이 있다면 이들은 원수의 무리들입니다. 일루미나티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참된 예배에서 사탄적 예배로 몰아가며, 교회의 주요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서 교회의 정책들과

판단들이 사탄적 가치관을 수용하도록 몰아가는 그러한 세력들은 원수의 세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조직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가슴 아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오시어서 교회의 대청소를 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2. 휴거: 신약 교회의 수확

종말에 있을 두번째 수확은 곡식의 수확, 즉 참된 신약 교회의 수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휴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확 활동입니다. 이 휴거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몇회의 공부를 통하여 이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참된 소망은 알곡의 수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말에 그의 참된 교회를 불러 올려 수확하실 날을 고대하실 것이며, 이것이 모든 참된 크리스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14-16]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제 수확할 밭에서 가라지들을 모두 대청소 하였으니 천사들의 남은 수확 활동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충실한 믿음의 영혼들인 것입니다. “땅의 수확물이 익어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알곡들을 거두어 올리실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휴거의 때가 임박하면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가신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각종 주요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교회를 세상적으로, 사탄의 가치관으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신도들을 잘못 인도하던 목회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게 되어 모든 신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 천사들이 수행한 가라지의 대청소에 관해 서로 말하며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아 구름 위로 올려질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세번째 수확: 진노의 포도 수확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수행하실 세번째 수확 활동은 바로 진노의 포도 수확이 될 것입니다. 이 수확의 때에는 신약 교회는 휴거되어 하늘로 옮겨가 있으며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고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믿게 되는 신자들이 환란 칠년 동안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중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환란 성도들은 이제 환란 기간의 끝에 다다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번째 수확 활동의 대상은 이 땅의 온갖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의 무리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교회의 대청소와는 별도로 칠년 환란 기간의 종반에 주님의 극심한 진노의 표현으로 실행하시는 대규모 살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3:1-6].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적국의 군대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인 이스라엘의 대평원에 초자연적으로 몰아 넣고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실 것입니다 [스가랴 14:1-3]. 이 세번째 수확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큰 진노의 행위일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접으시고 악에 대한 극심한 진노를 펼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17-20]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18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 때에 예루살렘 인근에 지진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사해로 연결될 것인데, 대평원에서 살상될 원수들의 피가 말 굴레 만큼의 깊이, 즉 4 피트 [1.2 미터] 이상의 깊이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1,600 스타디온 [304 킬로미터]를 흘러 아카바만으로 들어가 그 바닷물이 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찌기 이 바다를 ‘홍해 [Red Sea]’라고 일컬었으며 [왕상 9:26], 바로 이 아카바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건넜던 바다인 것입니다. 이 홍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 서쪽의 바다와 다른 곳이며, 시나이 반도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와 사이에 흐르는 좁은 만입니다. 종말 때에 피로 붉게 될 사실 때문에 이 바다를 구약 성경에서 홍해로 칭했던 것입니다.

4. 교훈

하나님께서서는 종말에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된 신약 교회를 수확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머지않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 하늘 나라의 큰 환영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시어 교회의 대청소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원수된 사탄이 신약 교회에 뿌려서 성장하여 이제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드러내어 실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대청소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거룩한 성도로서의 생활과 거룩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